




# 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외교 국방 북한

##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

[중앙일보] 입력 2020.06.10 09:42 수정 2020.06.10 10:30 | [종합 1면](#) [지면보기](#)

🖨️ 📄 ⬇️ 가 가

 한영의 기자  박해리 기자  김기정 기자









9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해 7월 '전태일재단'은 노동자 지원 명목으로 이주노동희망센터(외 40건) 등에 4124만원을 지급했다. 11월에는 전태일 추도식을 위해 부산 지하철노조(외 43건) 등에 4085만원이 쓰였다. 재단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 내용이다. 눈에 띄는 것은 '대표 지급처'로 신고된 곳의 상당수가 이른바 진보진영 단체나 업체라는 점이다.

사업비·홍보비·장학금 등 명목 진보진영 단체끼리 자금 풀듯이 민연련, 월 수천만원 지급처 안적어 "관행이지만 회계 검증 불가능"

현 정부서 늘어난 국가보조금 6월 50주기 사업을 위해 명필름(외 39건) 등에 9047만원을, 4월 어울림한마당 사업에서는 지역 비영리민간단체(NGO)가 운영하는 도시락 업체(외 45건) 등에 331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천기사



단독 김여정 지시에 조급했다 폭약 퍼부는 북한 '희한한 폭파'

단독 간호조무사, 마취 환자 성추행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또 터졌다

"검반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검찰과 또 충돌

설훈 "윤석열 같은檢총장 처음 내가 윤총장이면 벌써 그만뒀다"

"文 퇴임 연설 내가 말았으면..." 또 다시 여론 신경 끊은 진중권

통일부, 대남전단 살포 예고 지적에 北 "무슨 낯짝, 뼈라폭탄 보복할 것"

박사 학위 받지 못해 대학서 제적 '천재소년' 송유근, 향소심도 졌다

車 부품업체 '셋다운' 막는다 정부, 협력업체에 5조원 대출

주민들은 대한항공 편 들었다 "송현동 그 땅 공원화 반대"

日 뒷북 코로나앱, 위치추적도 안돼 실효성 의문 '제2 아베 마스크' 되나

볼턴 "북미 비핵화 韓 창조물 트럼프, 김정은에게 낚였다"

러폭격기 美ADIZ 진입에 맞대응 美폭격기도 보란듯 러국경 비행

트럼프 "中, 경쟁국 망가뜨리려 코로나 퍼트려"...EU도 공세

**진보 진영 유입된 뒤 들고 돌아  
진중권 "운동권블록 생존력 비결"**

신고했다. 해당 도시락 업체는 4·15 총선 직전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경기도 거리 곳곳에 걸고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 명필름은 심재명 대표이사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진보 색채가 강한 영화사다.

언뜻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진영 편중 거래'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후신) 논란으로 차가운 여론에 직면했다.

정의연은 내부 소식지 디자인을 윤미향(전 정의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회사(수원시민신문)에 발주했고, 정의연이 관련된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액은 진보계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가 받게 했다. 정의연의 회계 부장 의혹과 맞물려 진보진영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같은 성향의 시민단체가 '일감 연대'를 이루며 '경제 공동체'의 몸집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인 '김복동의 희망'은 이미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김복동의 희망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국내사업)'를 보면 1억3204만원의 총지출 가운데 상당액이 진보계열 단체나 인사들에게 지급됐다. 1억원의 장학금은 대부분 정의연 이사과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지급됐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1월 별세한 뒤엔 아예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로 한정된 장학금을 추가로 만들었다. "김 할머니가 평소에도 쌍용차 노동자들, 사드 반대 시민 등 사회구조적 피해를 본 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게 정의연 설명이다.

**시민단체 기부금, 진보계열 도시락·시위용품업체로 갔다**

나머지 사업비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연대사업(200만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홍보사업(500만원) 등에 쓰였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연이 NL 운동권의 물주 역할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운동조직들이 이룬 경제블록, 이것이 그들의 집요한 생존력의 비결일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가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를 보면 진영 내 '자본 재유입'의 패턴이 나타난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스튜디오 '일상의실천'에 두 차례 비용을 지출했다. 6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96건 9047만원', 지난해 12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102건 1억5100만원'을 지급할 걸로 돼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을 전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시위용품 전문판매업체 '연대와전진'을 대표지급처로 기재했다. '연대와전진'은 금속노조 조끼, 민중가요 음반, 장기투쟁용 얼굴 가리개, 깃발, 깃대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2007년 문을 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부실한 회계관리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코로나로 전 세계 무대 올스름 손열음 "저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주주 부사장 '정몽준 장남' 다음달 결혼한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나"

**많이 본 기사**

- 1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약
- 2 불탄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3 또 여론 신경 굽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4 "북은 핵 믿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5 설흔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6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7 대구 부시장직 제안받은 典 총의락 "도망길
- 8 [미리보는 오늘] 15억원 넘으면 대출
- 9 홍사덕 "비자금 수사 말라" YS 설득...97년 DJ
- 10 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AD] 2020년 '이 홍목' 사서 물어봐라 30배...  
[AD] 로도 당첨때만 알면 당첨확률 2배 올...

Innovation Lab

333 양치법보다 중요한

Posted by 통화악품

Branded Content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심대중심

50% 할인

고유식별정보 안전조... 경부고속도로 50주년 ...

**포티이슈**



복면 쓴 멕시코 프로레슬러들, 링 대신 거리로...

**댓글 많은 기사**

- 1 또 여론 신경 굽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2 설흔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3 불탄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4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 5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6 "북은 핵 믿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7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북·미회담 중
- 8 "유럽보다 한국" 난민 2만명 물린다는데,
- 9 [속보] 김연철 통일장관 1년2개월만에
- 10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약 퍼부은

UP TO 90% OFF

아이허브 단한번특가, 최대 90%할인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 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을 회계사는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회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지급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공시에는 대표지급처를 하나도 적지 않은 곳도 많았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지난해 국세청에 매달 8000만~1억47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1월 지급내역을 보면 '대북지원 및 운영 1건 9433만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신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월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쓰면서 지급처 상호는 한 건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은 증가했다. 정의연의 경우 2016년 1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후 1억5000만원(2017년)→4억3000만원(2018년)→7억4708만원(2019년)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지원사업 수혜 단체를 선정할 때 "국가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익·박해리·김기정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역류성식도염, 가슴통증" 원인 밝혀. 간단치료? 폐렴, 폐암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 충격! '불면증' 잠드는데 30분? 방지하면 진짜 큰일나. 로또 이번주 1등번호 꼭 나온다!" 3,17,24..  
"남성수술" 1시간이면 가능? 비용은? 43억 로또당첨된 아내, 남편 재워놓고 매일밤...



AD  
**힘력 좋아진 남성! 대체 뭘먹나 봤더니.. 충격!**  
중년남성의 잘못된 고민해결! 그 품격을 세운 "리얼맨"이 남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김재철(56세)씨는.. 더보기▶

**여행지, 예쁜 우리말을 찾아주세요!**  
이벤트 참여하고 휘닉스파크·영화관 기자

5 (Smiley face) 9 (Sad face) 8 (Share icon)

온라인 구독신청 | 지면 구독신청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공동체 #후원금 #진보계열 시민단체 #기부금지출 명세서 #경제 공동체

관련 태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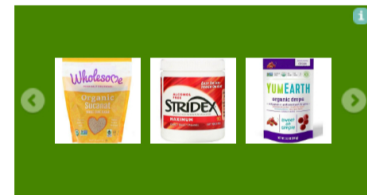
중앙일보 기자들의 팟캐스트 공간 **J팟**

스타기자

- 황진아도 울고 갈 미모, '기생꽃'
- 北, 41년전 소련 뒤편다...美도 눈뜨고 당한 '빨치산 전술'
- 은마 '6.17 쇼크'...328가구는 새 아파트 못 받는다



나만 알고 싶던 '몰라서 못산' 아이템 모음



iHerb



트럼프 "中, 경쟁국 망가뜨리려 코로나 퍼트려"...EU도 공세

코로나로 전 세계 무대 올스름 손염음 "저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정몽준 장남' 다음달 결혼한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나"

많이 본 기사

-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약
- 불탄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또 여론 신경 굽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북은 핵 믿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설훈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대구 부시장직 제안받은 興 총리의력 "도망갈
- [미리보는 오늘] 15억원 넘으면 대출
- 홍사덕 "비자금 수사 말라" YS 설득..97년 DJ
- 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AD] 2020년 '이 종목' 사서 물어봐라 30배..  
[AD] 로또 당첨패턴만 알면 당첨확률 2배 올...

Innovation Lab



333 양치법보다 중요한 **플라오리온**  
Dvachd by 두 한양루

"정의연, 후원금 모금 사용  
멈춰달라"...시민단체

[중앙시평] 어용 권력이 된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으로 직원  
월급? 美시민단체는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by D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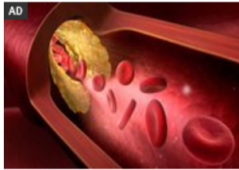
[단독] "윤미향이 할머니  
앵벌이"...위안부 피해자 가족...



검찰, 윤미향 의원 배임 의혹  
'안성 실터' 관련 건축업자...



[이봉주의 이코노믹스] 월  
32만원 지급해도 기존...



고혈압 당뇨 혈관을 짜악  
뚫어주는 이것은?



나만 몰랐다, 실비가  
1만원대라니



'혼란한 시기' CEO라면 반드시  
취해야 할 선택

< 1 | 2 | 3 >

### 전체댓글 0

게시판 관리기준

[알림] 소셜 로그인으로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소셜댓글이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의견 작성을 위해 원하시는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십시오

0/500 [등록](#)

### SHOPPING & LIFE

Branded Content

교육시행정보보안지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조사

50  
한국의 경제 50년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교육식별정보 안전조...  
경부고속도로 50주년 ...

### 포토이슈



복면 쓴 멕시코 프로레슬러들, 링 대신  
거리로...

### 댓글 많은 기사

- 1 또 여론 신경 굽는 진중권 "x 퇴임연설
- 2 설훈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3 불탄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4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 5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6 "북은 핵 밀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7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북·미회담 중
- 8 "유림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 9 [속보] 김연철 통일장관 1년2개월만에
- 10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약 피부는

UP TO 90% OFF

아이허브 단한번 특가,  
최대 90%할인

중앙일보 기자들의 핫캐스트 공간 J팟

### 스타기자

황진이도 울고 갈 미모, '기생꽃'



### 오피니언

사설칼럼  
만평  
디지털발전  
e글 중심

### 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외교  
국방  
북한

### 경제

경제정책  
산업  
금융증권  
부동산  
과학미래  
글로벌경제  
고용노동

### 사회

검찰·법원  
교육  
사건사고  
복지  
교통  
환경  
지역  
건강

### 국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토픽월드

### 문화

책  
공연  
미술  
클래식  
가요  
방송  
영화

### 스포츠

야구  
해외야구  
축구  
해외축구  
농구/배구

### 라이프 스타일

패션  
맛  
럭셔리  
뷰티

### 여행레저

국내여행  
해외여행  
여행뉴스  
Week&

### 포토·영상

포토  
영상

### 피플

사랑방  
인사  
부음

### 스페셜

중앙SUNDAY  
디지털스페셜  
통일무지개  
더,오래

### 서비스

뉴스레터  
이슈패키지  
트렌드 뉴스  
기자

### 독자 서비스

중앙멤버십  
구독신청  
제보  
보도자료



## 중앙그룹

[중앙일보](#) | [고객센터](#) | [윤리경영](#) | [광고 안내](#) | [채휴문의](#) | [건강신청](#) | [회원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고충처리](#)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 **등록번호** 서울 아 01013 | **등록일자** : 2009.11.2 | **발행인** : 홍정도 | **편집인** : 오병상 | **전화** : 02-751-5114 | **사이트맵**

JoongAng Ilbo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